

#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이해: 과정으로서 회심 과 사건으로서 회심

김성태

(예칭교회, 교육목사,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과정으로서 회심
- III. 사건으로서 회심
- IV. 회심의 도구적 원인
- V. 나가는 말

**[초록]**

본 연구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58)의 균형 잡힌 회심론을 논의한다. 대각성의 시기에 새 빛파는 무분별한 열정을 부추기며 즉각적인 회심을 강조했다. 옛 빛파는 과도하게 정통주의를 고수하며 점진적인 회심을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에드워즈는 새 빛파와 옛 빛파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것은 에드워즈의 참된 회심 이해가 준비교리(preparationism)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에드워즈는 과정(process)으로서 회심을 지지한다. 하나님은 자연인의 회심을 준비하며, 인간 구원에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반면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의 회심준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즉, 자연인은 스스로 회심을 준비하거나 추구할 수 없다. 둘째, 에드워즈는 사건(event)으로서 회심을 지지한다. 회심에서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필수적이며, 이 빛이 없으면 회심은 불가능하다.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말씀과 함께 주어진다. 택자는 이 초자연적인 빛으로 삶의 태도, 성향이 변하고 회심에 어울리는 의무를 행한다. 셋째, 에드워즈는 회심의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으로서 말씀을 꼽으며 자선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말씀과 자선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정과 양립 가능한 원인이다. 또한 사건으로서 회심에서 말씀과 과정으로서 회심에서 자선은 하나님의 주권과 별개로 은혜를 만들어 내거나 보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회심의 수단이다.

**키워드:**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서 회심, 사건으로서 회심, 신적이며 영적인 빛, 말씀과 자선

논문투고일 2024.01.30. / 심사완료일 2024.03.04. / 게재확정일 2024.03.05.

## 1. 들어가는 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58)의 회심론에 관한 상반된 이해가 공존하고 있다. 2021년 5월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주최로 “청교도 신학 회중파 에드워즈의 회심준비론 연구 발표회”에서 에드워즈의 회심론이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이라고 평가하였다.<sup>1</sup> 며칠 후 마르투스출판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준비론을 소개하며 에드워즈의 회심론이 개혁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반박 글을 두 차례 올렸다.<sup>2</sup> 더 이상의 표면적 공방은 없었지만, 에드워즈의 회심론에 관한 엇갈린 평가는 여전히 온라인 기사로 남아있으며 한국 교회에 불필요한 긴장과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청교도 신학은 … 믿음을 위한 노력과 믿음의 실제적 수용 사이의 관계를 ‘구원을 위한 준비’ 교리의 관점에서 자주 분명히 표현하였다.”<sup>3</sup> 그런데 청교도 전체가 준비교리와 관련하여 지혜롭게 언어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존 노턴(John Norton, 1606-1663)은 준비사역을 통해 회심의 본질적인 자격이나 권리를 얻는다고까지 표현했다.<sup>4</sup>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20세기 학자들은 청교도가 종교 개혁의 은혜 교리를 인간 중심의 율법주의로 대체했다고 해석하고, 일부 뉴잉글랜드 청교도를 “준비주의자”로 낙인찍으며 칼빈의 사상과 대척점에 두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sup>5</sup> 그러나 에드워즈를 소위 ‘준비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 본고는 2023년 4월 8일(토) 제38차 개혁신학회 학술대회(장소: 분당우리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1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준비론은 비성경적,” 기독교신문 (2021년 5월 22일).

2 “역사적으로 모든 개혁신학자들은 ‘준비론’ 가르쳤다,” 기독교포털뉴스 (2021년 5월 26일); “왜 회심준비론(준비교리)에 대하여 오해를 할까?,” 바른신앙 (2022년 10월 10일).

3 Conrad Cherry,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A Reappraisal* (N.Y.: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62f.

4 Joel Beeke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Grand Rapids, Mich: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455.

5 Beeke and Jones, *A Puritan theology*, 443; “율법적 구원관인가, 구원론의 섬세한 구분인가,” 기독교포털뉴스 (2021년 12월 6일), 2021년 11월에 기독교신리수호연구협회 주최로 청교도 회심 준비론에 관해 찬반 토론이 있었다. 정이철은 이신칭의를 근거로 청교도의 회심준비론을 개혁주의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김효남, “개혁파 언약사상과 청교도 준비교리,” 「한국복음주의역사신

보인다. 김효남은 헤르만 비치우스(Herman Witsius, 1636-1708)의 준비교리가 회심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청교도의 준비교리 역시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sup>6</sup> 또한 준비론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인 존 코튼(John Cotton, 1585-1652)은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며 칼빈과 개혁신학이 수용할 수 있는 준비론을 발전시켰다.<sup>7</sup>

에드워즈 학자 중 존 거스너(John H. Gerstner)는 에드워즈의 회심론에 대한 불일치성을 지적한다. 즉, 에드워즈는 초기에 인간이 믿음으로 나오기 전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1738년 누가복음 16:16을 근거로 한 설교(Pressing into the Kingdom)에서 구원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1740년 창세기 6:22을 근거로 한 설교(The Manner in Which the Salvation of the Soul is to be Sought)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추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sup>8</sup> 물론 에드워즈는 이 설교에서 노아(Noah)의 순종을 예로 들며,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노아의 준비행위가 구원의 공로적인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한 믿음의 행위로 제시한다.<sup>9</sup> 즉,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sup>10</sup> 이것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아우르는 에드워즈의 종합적인 회심 이해로 보인다.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회심준비와 관련하여 에드워즈를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맞서는 칼빈주의 전사로 표현한다.<sup>11</sup> 이상웅은 에드워즈의 회심론이 하나

학회 제44차 학술대회」(2021), 4-24. 김효남은 청교도가 인간이 믿고 회개하지만 그 원인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지했다는 점과 루터와 칼빈, 그리고 바빙크 등 여러 개혁파 신학자의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회심준비론이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것을 밝혔다.

6 김효남, “Double Preparation in the Soteriology of Herman Witsius(1636-1708),” 『갱신과 부흥』 28 (2021), 173-214.

7 John H. Gerstner, *The Rational Bibl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III* (Powhatan, Va: Berea Publications, 1993), 54, 56.

8 Jonathan Edwards, “Faith,” in *Writings on the Trinity, Grace, and Faith,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1, ed. Sang Hyun Le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430-31; Gerstner, *The Rational Bibl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III*, 63.

9 Jonathan Edwards, *Sermon on Genesis 6:22*.

10 Edwards, *Sermon on Genesis 6:22*.

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적절히 제시한다.<sup>12</sup> 이진락은 에드워즈가 청교도 전통의 회심준비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과 회심준비의 다양성을 제시한다.<sup>13</sup> 류길선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사이의 조화를 적절하게 논의하며, 초자연적 은혜와 자연적 수단의 활용 관계를 제시한다.<sup>14</sup> 마크 채프만(Mark B. Chapman)은 에드워즈의 회심 모델을 “초자연적 감정 비전”(supernatural affection vision)으로 명명하며, 성령이 회심의 유일한 시작점으로 분명히 밝힌다.<sup>15</sup> 또한 이병수는 중도 언약(Half-way Covenant)의 근거가 은혜 체험을 위한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준비이론이라는 것을 적절히 제시한다.<sup>16</sup> 이것은 에드워즈가 중도 언약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인간 편에서 회심준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심준비’ 혹은 ‘준비주의’라는 용어로 인해 질게 드리워진 펠라기우스주의적 그림자나 회심에서 자선의 역할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에드워즈의 회심론을 해석할 때, ‘이중 문맥’(dual contex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회심과 관련한 논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논의는 개혁주의적 청교도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벌인 ‘의지의 자유’(Freedom of the Will) 논쟁이다. 이것은 회심과 관련하여 “회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인간 편에서 준비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로 이어졌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회심준비의 주체라는 것을 충분히 논증한다. 두 번째 논의는 옛 빛파와 새 빛파가 벌인 회심에 관한 논쟁이다. 대각성의

11 Beeke and Jones, *A Puritan Theology*, 451.

12 이상용,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 (철학박사학위, 총신대학교, 2008), 170-79.

13 이진락,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적 정서’에 대한 연구,” (철학박사학위, 총신대학교, 2008), 35-40.

14 류길선,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준비교리: 초자연적 은혜와 자연적 수단의 활용 관계,” 『한국개혁신학』 74 (2022), 134-71.

15 Mark B. Chapman, “Models of Conversion in American Evangelicalism: Jonathan Edwards, Charles Hodge and Old Princeton, and Charles Finney,” (Ph.D. diss., Marquette University, 2015), 440.

16 이병수, 김수미,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과 선교에 대한 연구,” 『갱신과 부흥』 15 (2015), 38-53.

시기에 새 빛파는 성령의 사역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회심을 즉각적이고 임의적인 사건으로 이해했다. 옛 빛파는 갑작스러운 회심을 위험한 열정으로 경계하며<sup>17</sup> 회심의 질서를 강조했다. 제임스 패커(J. I. Packer)는 새 빛파를 성숙하지 못하며 광신적 열성으로 무장한 “분열적인 선동가”로, 그리고 옛 빛파를 “과도한 정통주의자”로 평가한다.<sup>18</sup> 새 빛파와 옛 빛파의 갈등 속에서 에드워즈는 회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전제하여, 새 빛파와 옛 빛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회심의 즉각성과 점진성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했다.

본 논문은 에드워즈의 회심 이해가 과정으로서 회심과 사건으로서 회심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며 참된 회심의 표준 혹은 표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것은 에드워즈가 ‘준비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II장에서 에드워즈가 지지하는 과정으로서 회심을 논의할 것이다. 하나님은 회심준비의 주체이며, 인간의 구원에 독립적이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반면,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의 회심준비 가능성은 없다. 즉, 스스로 회심을 준비하거나 공로로 인정받을 만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III장에서 에드워즈가 지지하는 사건으로서 회심을 논의할 것이다. 회심을 위해 오직 초자연적인 빛의 조명이 필수적이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며, 이 빛이 없으면 신앙을 발휘할 수 없다. 택자는 신적이고 영적인 빛이 비칠 때 회심한다. 즉, 인간은 회심 사건으로 삶의 성향과 태도가 변하고 회심에 어울리는 의무를 추구한다. IV장에서 회심의 도구적 원인을 논의할 것이다. 하나님은 수단 없이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수단과 도구를 적절히 사용한다. 에드워즈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인 말씀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자선을 회심의 ‘도구적 원인’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씀과 자선은 참된 회심을 검증할 수 있는 결과적 표지 역할을 한다.

17 E. Brooks Holifield, *Theology in America: Christian Thought from the Age of the Puritans to the Civil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2003), 98.

18 J. I. Packer, “The Glory of God and the Reviving of Religion: A Study in the Mind of Jonathan Edwards,” in *A God-Entranced Vision of All Things*, eds. John Piper and Justin Taylor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4), 104.

## II. 과정으로서 회심

종교 개혁자와 청교도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거듭남을 신자의 경험 속에서 뜬금없이 일어나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과정이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해한다.<sup>19</sup> 즉, 하나님은 율법이나 세속사를 사용해서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은혜의 여정을 준비한다. 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제기되는 의문은 죄로 죽은 죄인이 어떻게 회심을 준비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만약 자연인이 자유 의지로 공로를 준비한다면, 이것은 펠라기우스주의를 향한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3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주류 청교도에게 거부되었다.<sup>20</sup>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수용하며 과정으로 회심을 지지한다.

### 1. 하나님의 주권적 준비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God Doth Exercise His Sovereignty in the Affair of Men’s Eternal Salvation)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권리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는 당연히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sup>21</sup>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할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회심 후 인간의 노력에 대한 예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sup>22</sup>

<sup>19</sup> Beeke and Jones, *A Puritan theology*, 464.

<sup>20</sup> Beeke and Jones, *A Puritan theology*, 443.

<sup>21</sup> Jonathan Edwards, *Sermon on Rom.* 9:18.

<sup>22</sup> Jonathan Edwards,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in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ed. Mark Valer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280f.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간 구원에 행사한다. 1. 한 민족을 부르거나 그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거나 주지 않을 때 행사한다. 2.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부여한다. 3. 때때로 낮고 천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지혜롭고 위대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4. 하나님은 장점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다. 5.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악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떠나게 한다. 6. 하나님은 구원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몇몇을 구원하지 않는다.<sup>23</sup>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 위엄과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행사하며,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매우 사악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버리기도 한다. ... 하나님은 자신의 영예에 대한 침해 없이 죄인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에 대한 침해 없이 자연인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에 대한 침해 없이 회심하지 않은 자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영예를 해하지 않는 방식이다.<sup>24</sup>

회심준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에드워즈는 “사전계획이나 생각 없이 또는 회심으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 상황 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죄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sup>25</sup> 또한 그는 요한복음 3:8을 근거로 “하나님은 회심 사역에서 주권자이다”(God is Sovereign in the Work of Conversion)라는 설교를 한다.<sup>26</sup> 회심 전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준비는 항상 있다. 하나님의 준비사역(preparatory work)은 삼위일체의 사역이지만 성령에게 속한 사역이며, 성육신은 성령의 준비사역을 제대로

<sup>23</sup> Edwards, *Sermon on Rom.* 9:18.

<sup>24</sup> Edwards, *Sermon on Rom.* 9:18.

<sup>25</sup>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a-z, aa-zz, 1-500,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ed. Harry S. Stou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173 (#r).

<sup>26</sup> Jonathan Edwards, *Sermon on John* 3:8.

보여준다.<sup>27</sup>

하나님의 준비는 세속사와 구속사에서 발견된다. “만약 하나님이 원한다면, 어떤 준비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모세가 추방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특권과 사명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다윗의 피난시절 등은 하나님의 준비를 잘 보여준다.<sup>28</sup>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를 천국에 적합하게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은 준비와 많은 단계를 거쳐 온전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은 식물로 성경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발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하고 열매가 익으면 거두어들인다. ...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에게 베푸는 영적 선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모든 은혜의 방편은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필요한 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sup>29</sup>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를 소개한다.

1.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지를 배운다. 2. 하나님의 두렵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자. 3. 구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돌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돌려야 한다.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해야 하는 이유, 즉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계속되기 위해 낮아지신 것을 배운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 위해 힘쓰자.<sup>30</sup>

<sup>27</sup>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Entry Nos. 501-832),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ed. Ava Chamberlai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359f (#734).

<sup>28</sup>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833-1152.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ed.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393 (#1053).

<sup>29</sup> Edwards, *The "Miscellanies," 833-1152*, 393f (#1053).

<sup>30</sup> Edwards, *Sermon on Rom. 9:18*.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의 회심준비를 지지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를 비판하며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의지를 준비한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는 근거구절로 잠언 8:35, 시편 37:23, 빌립보서 2:13, 에스겔 36:26 등을 제시한다.<sup>31</sup>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준비를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주 은밀한 소망을 전달하며,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에게 인도된다.”<sup>32</sup> 삭개오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눅 19:4)은 믿음을 위한 일종의 준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늘의 영감 없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 호기심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겠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경건의 씨를 담고 있었다. 하나님은 종종 “은밀한 열망”(secret desire)을 전달한다.<sup>33</sup> 바빙크 역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연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sup>34</sup> 이로 볼 때, 과정으로서 회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반적인 섭리와 질서를 함의한다.

## 2. 자연인의 무능력

에드워즈는 육에 속한 자연인과 영에 속한 성도를 구별한다.<sup>35</sup> 즉, 성도에게는 신적인 빛으로 영적 본성에 적합한 “구원하는 조명”(saving illumination)이

31 Augustinus, *On Grace and Free Will*, ed. Philip Schaff (Louisville: GLH Publishing, 2017), chap. 32.

32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trans. William Pringle (repr., Grand Rapids: Baker, 1996), 2:433f (Luke 19:1-10); *Sermons on Deuteronom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7), 423.

33 John Calvin, *Commentary on Matthew, Mark, Luke II*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s://ccel.org/ccel/calvin/calcom32/calcom32.ii.lxxviii.html>.

34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III*,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219.

35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ed.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210.

허락된다.<sup>36</sup> 반면 자연인은 형벌과 공덕을 깨닫는 자연적 원리와 자연적 양심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죄를 깨닫는 조명”(convicting illumination)이 허락된다.<sup>37</sup> 따라서 자연인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만, 자연적인 원리를 보조할 뿐이며 초자연적 원리가 주입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자연인의 양심을 돕는 일반은총일 뿐이다. 자연적 원리만을 돕는다는 점에서 특별은총과 구별된다.<sup>38</sup>

자연적 양심은 가르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삼중적인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자연적 양심을 도와 자연인이 죄를 깨닫게 한다. 자연적 양심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 안에 남아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죄는 이것을 크게 방해한다. 인간 안에 완전한 모든 것은 죄로 인해 방해를 받고 손상되었다. 이성의 능력은 타락 이후에 남아 있지만, 크게 손상되고 눈이 멀었다.<sup>39</sup>

에드워즈는 구원에 관하여 자연인의 전적 타락을 강조한다. 그는 로마서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를 근거로 인류의 보편적 타락을 주장한다. 즉, 자연인(natural men)은 의무를 엄격하게 지키고, 이웃을 돕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sup>40</sup> 즉, 하나님의 법도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다. 비록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오히려 원수를 섬긴다.<sup>41</sup>

<sup>36</sup>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50.

<sup>37</sup> Jonathan Edwards, “God Makes Men Sensible of Their Misery before He Reveals His Mercy and Love,” in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ed. Mark Valer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152f.

<sup>38</sup> Edwards, *The “Miscellanies,”* (Entry Nos. 501-832), 155 (#626).

<sup>39</sup> Edwards, “God Makes Men Sensible of Their Misery before He Reveals His Mercy and Love,” 15f.

<sup>40</sup> Jonathan Edwards, “All That natural Men Do is Wrong,” in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ed. M. X. Less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518f.

<sup>41</sup> Edwards, “All That natural Men Do is Wrong,” 519.

에드워즈는 자연인의 적극적 선의 가능성을 거부한다. 자연인은 자신이 구원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설령 인식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즉, “자연인이 가능한 외적 의무를 다할 때, 상대적으로 옳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 즉 훨씬 더 죄가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피한다.” 그러나 자연인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옳은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선이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sup>42</sup>

에드워즈는 전적 무능한 자연인의 회심가능성을 배제한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선을 얻을 힘이나 능력이 없다. … 우리는 원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잃어버렸고, 우리 스스로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 그것을 얻을 힘이 없고 너무 멀어서 닿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favor)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입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값을 지불할 수 없다. 우리가 이보다 더 부지런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온 힘을 다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sup>43</sup>

에드워즈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의 회심준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인은 자기중심적이며 회심 전에 선한 것을 할 수 없다.<sup>44</sup> 즉, 자연인은 겉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추구한다. 비록 자연인의 행위가 외적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양심적일지라도 바른길을 비껴간다.<sup>45</sup>

자연인은 외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거나 행동에서 옳은

42 Edwards, “All That natural Men Do is Wrong,” 521f.

43 Jonathan Edwards, “Our Weakness, Christ’s Strength,” in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ed. M. X. Less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380.

44 Edwards, *The “Miscellanies,”* (Entry Nos. 501-832), 498 (#797).

45 Edwards, “All That natural Men Do is Wrong,” 519.

것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인이 진리를 말할 때, 공정하게 거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옳은 일을 하지만, 방식에서는 옳지 않다. 그 행동이 외형적으로 옳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의 본질과 같은 내면의 원리와 목적,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규칙이 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sup>46</sup>

에드워즈는 “끔찍한 상황에 놓인 자연인”(Natural Men in a Dreadful Condition)이라는 설교에서 자연인을 회심 전에 마귀의 자녀, 포로, 종들로 설명한다. 즉, 자연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상태이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원악한 상태이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 아래 있으며, 이 끔찍한 진노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sup>47</sup> 자연인은 스스로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에드워즈의 회심준비는 자연인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회심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전혀 다르다. 고언(C. C. Goen)에 따르면, 청교도 교사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주도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심 전이라도 초기 은혜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격려했다. 일부는 준비의 효력을 너무 과장하여 거의 신인협력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들에게 준비는 은혜로 들어가는 인간의 능력이었다.<sup>48</sup> 특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이 일반은총(common grace)을 향상시키면, 하나님이 특별은총을 부여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일반은총으로 특별은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 오히려 특별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일반은총을 향상시키고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9</sup>

칼빈은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회심준비를 긍정한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타락한 죄인은 창조주

<sup>46</sup> Edwards, “All That natural Men Do is Wrong,” 521.

<sup>47</sup> Jonathan Edwards, *Sermon on Acts 16:29f.*

<sup>48</sup> C. C. Goen, “Editor’s Instruction,” in *The Great Awakening,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4, ed.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12.

<sup>49</sup> Edwards, *The “Miscellanies,” (Entry Nos. 501-832), 67 (#522).*

하나님의 전체 지식이 쓸모가 없다.” 그러나 택자가 “부름을 받을 때, 완전히 교육받지 않거나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는 아니다.” 율법은 신자들의 행위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의 양심을 일깨워 죄책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sup>50</sup> 이로 볼 때, 칼빈과 에드워즈는 인간 중심적 회심준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회심준비를 지지한다.

### III. 사건으로서 회심

에드워즈는 신적이며 영적인 빛에 의한 회심을 지지한다. 회심은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원리가 주입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이다.<sup>51</sup> 즉, “회심은 (만일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인간을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위대하고 보편적인(universal) 변화”이다.<sup>52</sup> 따라서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역이며, 하나님은 이 사역에서 어떤 의무도 없다.”<sup>53</sup>

#### 1. 신적이며 영적인 빛

에드워즈는 마태복음 16:17을 근거로 “신적이며 영적인 빛”(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이라는 설교를 한다.<sup>54</sup>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회심에서

<sup>50</sup>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60) 2. 6. 1-4, 2. 7. 10.

<sup>51</sup> Jonathan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in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 eds., Wilson H. Kimnach, Kenneth P. Minkema and Douglas A. Sweene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89.

<sup>52</sup>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340f.

<sup>53</sup> Edwards, *sermon on John 3:8*.

<sup>54</sup> Jonathan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in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ed. Mark Valer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408-26. 전체 제목은 다음과 같다.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빛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혼에 직접 전달되는 것은 성경적이며 합리적인 교리이다”(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Immediately Imparted to the Soul by the Spirit of God, Shown

필수적이며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사역의 탁월함에 관한 감각”을 갖게 한다.<sup>55</sup> 즉, 증생한 자들은 자연인과 달리 신적이고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생기며,<sup>56</sup> 이 감각을 통해 진리와 실재를 확신할 수 있다.<sup>57</sup> 지식은 자연적 지식과 신적 지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연적 지식은 하나님이 ‘제2원인’(secondary cause)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간접적인 지식이다. 반면, 신적인 지식은 자연적 원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영혼에 전달하는 영적인 지식이다. 신적이고 영적인 빛으로만 영적 지식을 알 수 있다(고후 3:18; 4:3-8).<sup>58</sup>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고백(마 16:16)을 듣고 베드로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고백이 신적 지식이기 때문이다.<sup>59</sup>

에드워즈는 고린도후서 4:4을 인용하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영적인 빛이 없는 믿음은 빛의 자녀들의 믿음이 아니며, 어둠에 속한 자들의 상상에 불과하다. “영적인 빛이 있는 만큼만 신앙을 행할 수 있다.” 영적인 빛이나 안목 없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흑암의 왕에게 미혹을 받는 것이다. 생생한 은혜의 역사나 분별 있는 기독교적 체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60</sup> 즉, 신적이며 영적인 빛은 “복음에 계시된 구원 계획에 대한 적개심을 제거한다.” “이 빛만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며” 온 마음을 복음에 전적으로 일치시킨다. “이 빛은 성향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혼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 빛은 인간의 본성이 신적 본성을 닮게 해 주며,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고후 3:18).<sup>61</sup>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자(messenger)이며 신적인 빛의 직접적인 주권자(author)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to Be Both a Scriptural, and Rational Doctrine).

55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13.

56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59.

57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14.

58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09f, 416;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71.

59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08.

60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176.

61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24.

을 적용시키며, 화해와 용납(acceptance)을 이해시킨다. 즉, 성령이 영혼에 거처를 처음 정하고 그 마음에 빛을 비추일 때, 죄인은 회심한다.<sup>62</sup>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은 자연인의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성도에게는 내부에서 초자연적인 원리로 영향을 미친다. 즉, 성도를 성전으로 삼고 성도의 마음과 연합한다.<sup>63</sup>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가난한 어부, 문맹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했다.<sup>64</sup>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다. 즉, “말씀으로 전달된 교리의 탁월함을 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의 거룩함과 은혜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전달되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은혜가 탁월하다고 깨닫는 감각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인 빛이 주어지지 않으며(고후 4:4), 영적인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sup>65</sup>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본성을 훨씬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체에 적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sup>66</sup>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결과의 정당한 [제1]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자연적 힘이나 영향으로 구원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sup>67</sup>

신적인 지식과 빛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영적인 탁월함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의 감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 신적인 지식과 빛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적인 빛은 이성의 한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성 자체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여 사변적인 개념을 더 생생하게 구성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성은 우리에게 신적인 빛에 관한 개념과

62 Edwards, “The Threefold Work of the Holy Ghost,” in *Sermons and Discourses: 1723-1729,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4, ed. Kenneth P. Minkem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378, 394, 412.

63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10f.

64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09f.

65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15f.

66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225.

67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16.

신앙의 진리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성은 신적인 빛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sup>68</sup>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전,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악에 관하여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해시키는 합리적이다.<sup>69</sup> 즉,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적절히 사용한다.

은혜와 은혜의 행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즉, 성령의 일반적인 방법은 구원에 먼저 관심을 갖게 하고 많이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으로 양육된 자들에게 먼저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반적인 방식이다.<sup>70</sup> 이것은 인간의 회심준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회심준비가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이로 볼 때, 에드워즈는 과정으로서 회심과 사건으로서 회심을 대척점에 두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를 수용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의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준비를 기계적이거나 획일적인 틀에 가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사역을 배제하지 않는다.

## 2. 회심의 실재

벨코프에 따르면, “참된 회심”(Conversio Actualis Prima)은 하나님이 인간의 의식적 과정(conscious course)을 변화시키는 능동적(active) 회심, 능동적 회심의 결과로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수동적(passive) 회심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1</sup> 즉, 신적이고 영적인 빛이 주어질 때, 회심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택자는 회심에 어울리는 성향과 실제적인 삶의 태도

68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415, 422f.

69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152.

70 Edwards, *The “Miscellanies,” a-z, aa-zz, 1-500*, 282-83 (#116b),

71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1), 482.

가 분명하게 변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안에 있고,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게 하는 원리가 주입되기 때문이다. 매우 독특한 기질과 체질을 가진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삶의 조건, 남녀노소, 빈부귀천, 자유자나 노예를 변화시킨다.<sup>72</sup>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새로 태어날 때 영혼은 분명하고 매우 큰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의 기점은 분명하다.<sup>73</sup>

회심에서 주요한 변화 즉, 첫 번째이며 모든 것의 기초는 마음의 기질과 성향(disposition) 그리고 영의 변화이다. 왜냐하면 회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수여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영혼에 거하며 삶과 행위의 원리가 된다. 이것은 새롭고 신적인 본성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영혼의 본성은 신적인 빛을 받아들인다.<sup>74</sup>

회심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 그리고 수많은 시대의 경험이 회심에서 마음과 인간 본성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sup>75</sup> 에드워즈는 “회심의 실재”(The Reality of Conversion)라는 설교에서 회심의 가시적 증거가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악명 높은 사람”과 “순교자”를 꼽는데,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다.<sup>76</sup>

예전에 악명 높았던 사람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가시적 증거들이 많다. 모든 종교를 멸시하고 온갖 형태의 불경스럽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전의 헛되고 사악한 삶 대신에 겸손하고 경건하고 영적이고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었다.<sup>77</sup> 이러한 예들은 사도 시대와 종교 개혁 시대에 특히 많았다. 사도 시대에 우상 숭배, 간음, 도둑질, 토색 등을 일삼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sup>72</sup>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89.

<sup>73</sup> Edwards, *The “Miscellanies,” a-z, aa-zz, 1-500*, 359 (#241).

<sup>74</sup> Edwards, *The “Miscellanies,” a-z, aa-zz, 1-500*, 462 (#397).

<sup>75</sup>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90.

<sup>76</sup>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86.

<sup>77</sup>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86.

이름과 성령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전 6:9-11). 또한, 잔혹한 핍박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겸손하고 온유하고 열성적인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경우도 많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온갖 어려움과 시험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것은 개인적 회심보다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반적인 회심의 실재성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몇몇 사람이 마음의 변화 없이 외적 행동이 변한 것처럼 보이고 변화된 성도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sup>78</sup>

순교자들의 가시적 증거 역시 많다. 수많은 순교자가 초자연적 힘에 의해 본성의 변화와 같은 일에 대한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참으며 마음의 거룩함을 분명히 드러냈다. 만약 회심의 실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회심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를 얻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시험당하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큰 고통을 당하는 수천, 수백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 사랑과 세상을 떼어내는 놀라운 증거를 가진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고통을 겪으며 죽는 것을 선택했다.<sup>79</sup> 박해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성도의 믿음, 사랑, 용기를 꺾을 수 없었다. “성도는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기꺼이 모든 고통을 겪었다. 그들 중 많은 이는 고통 중에도 심히 기뻐했고, 환난 중에도 영화롭게 되었다.” 용감하고 환난을 이겨낸 사람은 소수가 아니다.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잔인한 왕들을 이겨냈다. 이성의 빛을 외면하지 않는 역사가라면 기독교인이 자연적 본성 이상의 어떤 것, 즉 “사람이 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원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때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대표적 인물이다.<sup>80</sup>

78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86f.

79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87.

80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88.

## IV. 회심의 도구적 원인

에드워즈는 ‘참된 회심’의 원인으로 말씀과 자선을 꼽는다.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 판인 ‘하나님과 관계’를 대표하고, 자선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 판인 ‘인간과의 관계’를 대표한다.<sup>81</sup> 물론 하나님은 말씀과 자선 없이 인간이 회심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회심의 수단을 적절히 사용한다. 말씀은 회심의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이며<sup>82</sup>, 자선은 회심의 도구적 원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선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과정으로서 회심’에서 자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사 58:10-11).<sup>83</sup> 이것은 사건으로서 회심만을 강조하며 교회 질서와 성도다움을 경시하는 열성적 광신주의자들을 적절히 경계한다.

### 1. 말씀

청교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생의 유효한 “제1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지했다.<sup>84</sup> 에드워즈 역시 말씀을 사건으로서 회심에서 주요한 도구적 원인으로 이해한다. 즉, 하나님의 감동 없이 회심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다.<sup>85</sup>

81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97f.

82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Entry Nos. 1153-1360),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3, ed. Douglas A. Sween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71f (#1157).

83 Jonathan Edwards, “Much in Deed of Charity,” in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 eds., Wilson H. Kinnach, Kenneth P. Minkema, and Douglas A. Sween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199.

84 Beeke and Jones, *A Puritan theology*, 473.

85 Jonathan Edwards, *Freedom of the Will,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 ed.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434; “Pressing into the Kingdom of God,” in *Jonathan Edwards on Knowing Chris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7), 89.

하나님 말씀의 경고는 죄인을 각성하게 하고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데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경고하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 … 우리를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애쓰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최고의 수단(means)을 사용한다. 우리 구원의 수단을 고안하고 지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sup>86</sup>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검증된 참된 회심의 지표이다. 즉, “성령이 지정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열광주의”이다.<sup>87</sup>

당신은 그리스도가 양떼의 발자취(footsteps of the flock)를 따라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길은 신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갔던 길이며,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던 길이다. 그곳이 어딜까? 목자들의 장막 옆, 즉 하나님의 규례(ordinances)를 따르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표시한 길이며, 수천 명의 사람이 성공적으로 발견한 곳이다. 우리는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향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평탄한 길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길에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다.<sup>88</sup>

제1원인인 하나님의 주권과 비교하면, 은혜의 방편은 단지 은혜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sup>89</sup>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임의적이며, 그러한 법과 규칙의 수단에 매이지 않으며”, 은혜는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회심의 수단 혹은 도구적 원인인 말씀은 “[제1]원인이 아니며, [제1원인인 하나님과 비교하면] 단지 기회(occasions)를 제공한다.”<sup>90</sup> 그런데 존 캐릭(John Carrick)은 에드워즈의 기본 입장을 “죄인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회심하는 축복의 길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며, 칼빈주의적 구도

86 Jonathan Edwards, *Sermon on Luke 16:31*.

87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138.

88 Edwards, “Fragment: From an Application on Seeking God,” 381.

89 Edwards, *The “Miscellanies,”* (Entry Nos. 501-832), 84 (#539).

90 Edwards, *The “Miscellanies,”* (Entry Nos. 501-832), 157 (#629).

교리(doctrine of seeking)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sup>91</sup> 그러나 에드워즈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 의무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다.<sup>92</sup>

실제로 대각성 시기에 죄를 깨닫고 무절제한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대부분 사람은 지정된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모든 의무에 전념했다.<sup>93</sup> 따라서 에드워즈가 말하듯이,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불쌍하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성경에 관해, 안식일에 관해, 규례에 관해 모든 유익을 잃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소중한 특권을 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sup>94</sup>

## 2. 자선

에드워즈는 자선을 회심의 도구적 원인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를 ‘과정으로서 회심’ 맥락에서 이해할 때, 행위구원이나 율법주의,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로 비약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과정으로서 회심에서) 자선은 회심에 선행(preceding)하며, 건전하고 참된 회심에는 자선이 함께한다. 다시 말해, 회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집회에 가서 묵상하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두 번째 돌 판도 중요하다. 자선은 인간이 영적 발견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한 의무이며,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방법이다.<sup>95</sup> 자선, 즉 인간을 향한 도덕적 의무는 “하나님 말씀의 의무와 규례를 따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지정한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외적 의무와 사람을 향한 도덕적 의무를

91 John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08), 89f.

92 Edwards, “Pressing into the Kingdom of God,” 95f.

93 Jonathan Edwards, *The Great Awakening,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4, ed.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103.

94 Edwards, “Fragment: From an Application on Seeking God,” 384.

95 Edwards, “Much in Deed of Charity,” 203-05.

비교한다면, 성경에서 선언한 것처럼 사람을 향한 도덕적 의무가 우선된다. 하나님은 “금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마 9:13).<sup>96</sup>

성경은 종종 회심 사건이 있기 전 자선을 언급한다. 즉, 자선은 참된 회심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적 원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영적 발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사도행전 10:4-6을 근거로 “자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Much in Deed of Charity)를 설교하며, 이방인의 첫 열매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에 주목했다. 즉,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sup>97</sup>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십계명의 첫 번째 돌 판에 새겨진 하나님께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돌 판에 새겨진 사랑의 자선 행위를 자발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sup>98</sup> 에드워즈는 누가복음 7: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를 인용하며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백부장을 예로 든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방식으로 영적 발견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탁월했다. … 백부장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는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백부장에게 기적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sup>99</sup>

자선은 하나님의 예정을 훼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선 행위 자체가 구원을 돕는 보조적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역사하는 믿음”(working faith) 외에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과 구원 얻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한다.<sup>100</sup>

<sup>96</sup>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98.

<sup>97</sup> Edwards, “Much in Deed of Charity,” 197.

<sup>98</sup> Edwards, “Much in Deed of Charity,” 198.

<sup>99</sup>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98.

<sup>100</sup> Jonathan Edwards, *Sermon on 59. Gal. 5:6(a)*; “He That Believeth Shall Be Saved,”

즉, 자선은 회심의 유익(benefit)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자선 행위의 결과와 관련시키지만, 그 복은 자선 행위 자체의 결과가 아니다(눅 17:10).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은혜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선은 ‘공로적 원인’(meritorious cause)이 아니며, 공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sup>101</sup>

에드워즈는 자선을 포함한 인간을 향한 도덕적 의무에 힘쓸 것을 권면한다.

하나님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방식으로 회심을 구하라. 구원하는 회심을 획득하는 방법은 철저히 당신의 삶을 개혁하고 율법의 두 돌 판에 있는 모든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회심을 추구하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회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정의와 자비의 의무를 추구해야만 한다.<sup>102</sup>

양낙홍은 에드워즈의 준비론이 율법주의적 냄새가 있으며, “기도와 성경 읽기나 규례에의 참여 외에 심지어 도덕적 의무들도 회심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라고 평가한다.<sup>103</sup> 이것은 자선을 인간 중심의 회심준비나 공로적 원인으로 해석한 것인데, 에드워즈가 자선을 ‘과정으로서 회심’과 연결시키는 맥락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즈는 새 빛파가 반율법주의를 표방하며 열정적 광신주의로 함몰되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자선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에드워즈의 이해는 자선이 공로적 원인이나 회심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펠라기우스주의나 아리미니우스주의와 결을 달리한다.<sup>104</sup>

in *The Blessing of God: Previously Unpublished Sermons of Jonathan Edwards*, ed. Michael D. McMullen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2003), 112.

<sup>101</sup> Edwards, “Much in Deed of Charity,” 202.

<sup>102</sup> Edwards, “The Reality of Conversion,” 97f.

<sup>103</sup> 양낙홍, “에드워즈의 회심론 분석,” 『한국개혁신학』 17 (2005), 62.

## V. 나가는 말

에드워즈는 옛 빛파와 새 빛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균형 잡힌 회심 이해를 제시한다. 첫째, 에드워즈는 과정으로서 회심을 지지하며, 회심준비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꼽는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주권을 죄인 구원에 행사한다. 하나님은 세속사와 구속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여정을 준비하고 섭리한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인의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다. 반면,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은 스스로 회심을 위한 어떠한 준비나 노력을 할 수 없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할 뿐,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선을 추구할 수 없다. 심지어 신앙적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원수를 섬긴다.

둘째, 에드워즈는 사건으로서 회심을 인정을 지지하며, 회심에서 신적이며 영적인 빛이 필수적이라고 이해한다. 즉, 이 빛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며, 이 빛이 없으면 회심은 불가능하다. 신적인 빛은 말씀과 함께 주어지며,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영적 감각을 대항하는 마음의 편견을 제거하며 남녀노소, 빈부귀천, 자유자나 노예를 막론하고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킨다. 예전에 악명 높았던 사람이나 순교자의 가시적 증거는 회심이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셋째, 에드워즈는 말씀을 ‘사건으로서 회심’의 원인으로 꼽으며, 자선을 ‘과정으로서 회심’의 원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말씀과 자선은 하나님의 주권과 비교하면 단지 기회를 제공할 뿐이며, 하나님은 말씀과 자선 없이 회심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자선을 회심에서 실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말씀과 자선은 ‘참된’ 회심을 검증할 수 있는 유효한 표지가 될 수 있다. 에드워즈의 이해는 무분별한 광신적 선동이나 과도한 정통주의를

10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3. 7; Paul Ramsey, “Editor’s Instruction,” in *Freedom of the Will,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 ed.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100.

적절하게 경계한다.

한국 교회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신앙적 성숙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했고, 2000년대 접어들어 세속화와 물질주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교회의 비리, 위선, 배타적 독선, 도덕적 타락 등 부끄러운 민낯으로 인해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 교회에 ‘안나가’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급증은 기존 제도적 교회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에드워즈는 한국 교회에 균형 잡힌 회심 이해를 보여준다. 한국 교회는 로마서 문맥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행위 구원을 적절히 경계했다. 반면 야고보서 문맥에서 성도에게 어울리는 실천에 충분히 관심을 쏟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로마서 문맥과 야고보서 문맥을 아우르며 긴장과 균형을 유지한다. 자선이 회심의 수단 혹은 도구적 원인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에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선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회심준비의 일반적인 과정 중 일부이며, ‘참된’ 회심 문맥에서 외면할 수 없는 표지이다. 로마서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서의 필연적인 행위가 경쟁하지 않고 참된 회심을 교차 점검(cross check)하듯이, 에드워즈의 회심 이해는 참된 회심과 성도다움의 성찰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ugustinus. *On Grace and Free Will*. Edited by Philip Schaff. Louisville: GLH Publishing, 2017.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III.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6.
- Beeke, Joel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Grand Rapids, Mich: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60.
- \_\_\_\_\_. *Sermons on Deuteronom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7.
- \_\_\_\_\_.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96.
- \_\_\_\_\_. *Commentary on Matthew, Mark, Luke II*.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 Chapman, Mark B. “Models of Conversion in American Evangelicalism: Jonathan Edwards, Charles Hodge and Old Princeton, and Charles Finney.” Ph.D. diss., Marquette University, 2015.
- Carrick, John.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08.
- Cherry, Conrad.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A Reappraisal*. N.Y.: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 Edwards, Jonathan. *Freedom of the Will.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 Edited by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 \_\_\_\_\_. *Religious Affection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Edited by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 \_\_\_\_\_. *The Great Awakening.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 Vol. 4. Edited by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The "Miscellanies," a-z, aa-zz, 1-500.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Edited by Harry S. Stou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Sermons and Discourses: 1723-1729.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4. Edited by Kenneth P. Minkem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The "Miscellanies," (Entry Nos. 501-832),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Edited by Ava Chamberlai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Sermons and Discourses 1734-1738.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9. Edited by M. X. Less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The "Miscellanies," 833-1152.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Edited by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Writings on the Trinity, Grace, and Faith.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1, Edited by Sang Hyun Le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Miscellanies," (Entry Nos. 1153-1360).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3. Edited by Douglas A. Sween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The Blessing of God: Previously Unpublished Sermon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Michael D. McMullen.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2003.
- \_\_\_\_\_.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 Edited by Kimnach, Wilson H., Kenneth P. Minkema, and Douglas A. Sween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Jonathan Edwards on Knowing Chris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7.
- \_\_\_\_\_. *Sermon on Genesis 6:22*.
- \_\_\_\_\_. *Sermon on Luke 16:31*.
- \_\_\_\_\_. *sermon on John 3:8*.
- \_\_\_\_\_. *Sermon on Acts 16:29-30*.
- \_\_\_\_\_. *Sermon on Rom. 9:18*.
- \_\_\_\_\_. *Sermon on 59. Gal. 5:6(a)*.
- Gerstner, John H. *The Rational Bibl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III*. Powhatan, Va: Berea Publications, 1993.
- Goen, C. C. "Editor's Instruction." In *The Great Awakening.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4. Edited by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Holifield, E. Brooks. *Theology in America: Christian Thought from the Age of the Puritans to the Civil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2003.
- Packer, J. I. "The Glory of God and the Reviving of Religion: A Study in the Mind of Jonathan Edwards." in *A God-Entranced Vision of All Things*. eds. John Piper and Justin Taylor.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4.
- Ramsey, Paul. "Editor's Instruction." In *Freedom of the Will.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 Edited by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 김효남. "Double Preparation in the Soteriology of Herman Witsius(1636-1708)." 「갱신과 부흥」 28 (2021), 173-214.
- \_\_\_\_\_. "개혁파 언약사상과 청교도 준비교리."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제44차 학술대회」 (2021), 4-24.
- 류길선.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준비교리: 초자연적 은혜와 자연적 수단의 활용 관계." 「한국개혁신학」 74 (2022), 134-71.
- 양낙홍. "에드워즈의 회심론 분석." 「한국개혁신학」 17 (2005), 39-70.
- 이병수, 김수미.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과 선교에 대한 연구." 「갱신과 부흥」 15

(2015), 38-53.

이상용.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 철학박사학위, 총신대학교, 2008.

이진락.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적 정서’에 대한 연구.” 철학박사학위, 총신대학교, 2008.

“역사적으로 모든 개혁신학자들은 ‘준비론’ 가르쳤다.” 기독교포털뉴스 (2021년 5월 26일).

“올법적 구원관인가, 구원론의 섬세한 구분인가.” 기독교포털뉴스 (2021년 12월 6일).

“왜 회심준비론(준비교리)에 대하여 오해를 할까?.” 바른신앙 (2022년 10월 10일).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준비론은 비성경적.” 기독교신문 (2021년 5월 22일)

**[Abstract]****Jonathan Edwards' Understanding of Conversion:  
Conversion as Process and Conversion as Event**

Sung Tae Kim

(YeCheong Church, Educational Pastor, Systematic Theology)

This study discusses Jonathan Edwards' balanced understanding of conversion. During the period of the Great Awakening, the New Lights emphasized immediate conversion, instigating reckless enthusiasm. The Old Lights adhered to excessive orthodoxy, observing gradual conversion. In this conflict, Edwards maintained the tension and balance critically accepting the New Lights and the Old Lights. It shows that Edwards' understanding of true convers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preparationism. First, Edwards supports conversion as a process. It means only God prepares for the conversion of natural men throughout history and exercises absolute sovereignty over human salv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ural men who are totally fallen have no possibility of preparation. That is, the natural men cannot prepare for or seek their conversion. Second, Edwards supports conversion as an event. It means the divine and spiritual light is essential to human conversion.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divine and spiritual light. This light is given with the Word. With this supernatural light, the elect can change their attitudes or dispositions in their lives, and seek their duties appropriate to conversion. Third, Edwards supports the Word as the instrumental cause of conversion and does not exclude charity from the instrumental cause of conversion.

It implies they are compatible with God's predestination as the primary cause. In other words, the Word and charity do not produce or assist grace apart from God's sovereignty but are means of conversion used by God.

**Key Words:** Jonathan Edwards, God's preparation, conversion as process, conversion as event, divine and spiritual light, the Word and charity